

제6회 세계한국학대회  
대 주제: “한국 전통의 변모: 과거와 현재”  
서울, 노보텔 강남, 2012, 9. 25-26

“해외한국학” 교육: 국내외 비교  
Education of “Overseas Korean Studies” at Home and Abroad: A Comparison<sup>1</sup>

김종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과거에 비해 점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구촌에서의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향상과 함께, “한국학의 세계화”란 기치 아래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에 힘 입어 한국학을 외국어로 가르치는 대학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sup>2</sup> 그러나 한국학 교육의 측면에서, 국내외의 한국학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외 대학원 과정에서<sup>3</sup>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한국학 교육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한국학 교육의 더욱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려는데 있다.

여기서의 “해외한국학”은 국내외의 대학원 과정에서 영어로 교수되는 한국학을 뜻하며,<sup>4</sup> 그 대상은 이 분야의 학위가 수여되는 대학원이다. 분석 내용은 인적자원과 교육과정의 2가지다. 분석 방법은 비교분석법에 의할 것이며, 비교 대상은 국내의 국제대학원과 미국의 대학원인데,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한국학대학원(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GSKS)의 국제한국학부(Program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PIKS)와<sup>5</sup> 미국 UCLA의 아시아문화학부(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DALC)의 한국학프로그램(Korean Studies Program: KSP)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 이유는 전자는 “세계 한국학의 허브”로 자임하는 곳이며, 후자는 해외한국학을 대표하는 대학 중의 하나인 동시에<sup>6</sup> 미국에서 가장 많은 3,300명 이상의 재학생이 한국학을 공부하고

<sup>1</sup> 이 논문은 발표문이므로, 저자의 동의 없는 무단 인용은 금한다.

<sup>2</sup>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의 현주소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김종명 2006 참조.

<sup>3</sup> 국내에서 교육에 관한 논의는 대학 입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후자는 소위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학부 과정의 확충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문제가 있다. 학문성을 담보하는 곳은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므로 대학원 과정에 대한 논의와 투자가 우선임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sup>4</sup> 국내 해외한국학 전공의 현황, 과제 및 방향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김종명 1997:152-9; 김종명 2006 참조.

<sup>5</sup>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한국학부의 원래 영어명은 PROGRAM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였으며, 현재는 FACULTY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로 사용되고 있다. 후자는 영국계 대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사용도 이 학부에 영국계 대학 출신 교수가 2009 년 학부장으로 임용되면서 임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1945 년 이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수립되었으며, “FACULTY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는 학부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명칭도 아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국제한국학부의 명칭은 원래의 명칭인 PROGRAM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로 표기한다.

<sup>6</sup> 해외에서 한국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 및 교수 되고 있는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 서유럽, 일본, 중국 등이다. 이 가운데 일본은 가장 먼저 한국학을 연구한 나라인데, 그 동기는 식민지 정책 차원의 일환으로서였다. 그러나 1945 년 광복 이후 일본 학계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차츰 감소해 왔다. 서구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서유럽 몇 개국이

있는 대학<sup>7</sup>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KS PIKS는 인문학부, 문화예술학부, 사회과학부와 함께 한국학대학원 소속의 일 학부다. 전자의 3개 학부는 한국학 관련 강의가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반면, PIKS의 강의 언어는 영어며, 국내 타 대학원의 국제(학)대학원 한국학과에 해당된다.

그리고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은 해외한국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Korean Studies Abroad* 2010);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연구업적의 절대 다수(약 90%)가 영어로 출판 (김중명 2009:37)되고 있다; “21세기의 지성”으로 불리는 프랑스 전 파리정치대 초빙교수 기 소르망(Guy Sorman, 1944-)은 한국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인사인데, 그는 수 년 전 한중연에서 개최된 학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학계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란 요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학계의 경쟁 강조에 있었다; 유럽국가들에 의한 볼로냐 선언(Bologna-Deklaration, Bologna Declaration)도 또 다른 예다.<sup>8</sup>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은 관련 문헌 자료, 직. 간접 경험, 인터뷰 등이다.

## I. 인적 자원

교육 현장에서의 인적 자원은 크게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교직원은 행정적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sup>9</sup> 여기서는 교수진과 학생으로 한정시켜 살펴본다.<sup>10</sup>

### 1. 교수

교수진은 각 프로그램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먼저 각각의 역사를 살펴본 후, 교수진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

1950년대부터 한국학에 대한 일정한 관심을 보여 왔다. 북미주에서의 한국학 연구도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미국은 해외한국학 연구 및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은 “동북공정” 등과 관련 과거 10여년 전부터 정치적, 역사적 차원에서 한국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up>7</sup> 이 대학교의 한국학 관련 개요에 대해서는

[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MISSION.ASP](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mission.asp) (2012. 08. 10 검색) 참조.

<sup>8</sup> 이 선언은 1999년 6월 유럽의 29개국의 교육 장관이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모여 결의한 것으로서 그 목표는 유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일 유럽대학 제도 설립에 있었다. 즉, 2010년까지 이해하기 쉽고 비교 가능한 대학졸업제도와 학점 취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서([HTTP://CAFE.NAVER.COM/EUROPIA/19](http://cafe.naver.com/europaia/19)) (2012. 08. 09 검색), 그 주요 내용은 미국과 한국처럼(한국의 교육제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받아들인 미국의 교육제도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이원화하여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HTTP://WWW.VOP.CO.KR/A00000053509.HTML](http://www.vop.co.kr/A00000053509.html)) (2012. 08. 09 검색).

<sup>9</sup> 2006년까지 AKS PIKS의 행정상의 문제점은 인적 자원의 한국학 분야 전문성 부족, 학생의 국별 편중, 백화점식 교육과정 운영, 영어 강좌 수의 절대 부족, 영어 강의 교수에 대한 대우 문제 등이었다(김중명 2006).

<sup>10</sup> 2006년까지의 관련 연구에 의하면, AKS PIKS에는 정규 직원 없이 대학원생 조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노출되었다(김중명 2006). 그러나 2011년 정규 직원이 채용되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행정상의 문제는 남아 있다. 대학원생으로서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수강신청서, 장학금신청서, 논문 관련 신청 서류 등 학생들이 접해야 하는 서류는 수십 종에 이른다. 나는 이 서류들의 영역본 구비의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 학교 당국에 건의해 왔으나, 2012학년도 1학기까지 이 서류들의 영역본은 없었다. 2012년 8월 8일 담당부서 직원에게 이 문제를 다시 건의하자, 그 직원은 부서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하여,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1) AKS PIKS

AKS PIKS의 약사는 표 1과 같다.

표 1. AKS PIKS 약사<sup>11</sup>

연도	개요
2003. 9. 4	해외한국학계열 신설(석.박사 통합과정), 전임교수 1명(한국문학) 초빙
2004	겸임교수 1명 임명
2005	전임교수 2명(지리학, 한국불교학) 초빙, 겸임교수 1명 교체, 3명 임명
2007	전임교수 2명(한국문학, 지리학) 타 학부로 이동
2008 10. 31	국제한국학부(한국문화학 전공)로 변경
2009	전임교수 2명(한국사, 심리학) 초빙; 석. 박사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축소 개편

표 1에서처럼, AKS PIKS는 2003년 처음 개설된 이래, 몇 차례의 행정적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 사이 교수진의 변동과 학부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학위과정도 석. 박사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축소 개편된 채 2012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학부 개설 초기의 전임 및 겸임교수 3명(문학, 인문정보학, 지리학)은 모두 국제 기준(이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에 준한 해외한국학 전문가들은 아니었으며, 이 기준에 준한 전임교수 초빙 1명은 2005년에 이루어졌다.<sup>12</sup> 2012년 1학기 현재 이 학부의 교수진은 전임 3명, 겸임 4명 등 7명이며, 그들은 교수 5명,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이다. 교수 2명과 조교수 1명으로 구성된 전임교수들의 전공은 심리학, 한국불교학, 한국사며, 그들의 최종 학위국은 미국과 호주다. 교수 3명과 부교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겸임교수들은 타 학부 교수로서 영어 강의가 가능한 교수들인데, 그들의 전공은 국문학, 사회학, 유학, 인류학이며, 그들의 학위국은 영국과 한국이다(표 2).

표 2. AKS PIKS 교수진

교수진	전공	박사학위국	직위
전임 1	심리학	미국	조교수
전임 2	한국불교학	미국	교수
전임 3	한국사	호주	교수
겸임 1	국문학	한국	부교수

<sup>11</sup> 이 정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학처 외국인학생담당자(이나연)과 사무국 총무팀 인사담당자(원민재)로부터 얻은 것이다.

<sup>12</sup> 국내 최초로 해외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해와 대학원은 1987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이었다. 그는 이 대학원 출신 박사학위 1호며, 미국에서 한국학 분야의 대표적 대학교인 UCLA의 이 분야 박사학위 1호기도 하다.

겸임 2	사회학	한국	교수
겸임 3	유학	한국	교수
겸임 4	인류학	영국	교수

2) UCLA KSP  
UCLA KSP의 개요는 표3 과 같다.

표 3. UCLA KSP 개요<sup>13</sup>

연도	개요
1985-6	한국어 첫 개설
1986-90	불교학, 문학, 언어학, 역사학, 인류학 교수 초빙
1990-1	한국학 박사과정 개설
1992-3	학부 한국학 전공 개설
1993-4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 설립
1994-9	5명의 전임교수 추가 초빙; 한국어 전임강사진 초빙; 음악 분야 겸임교수(part-time adjunct professor) 초빙
2003-9	UCLA의 중점 프로그램(Flagship Program)으로 선정됨; 3명의 강사 추가 초빙

UCLA KSP에는 1985년에 한국어 강좌가 처음 개설된 후, 1980년대 후반에 대학원 과정이 처음 신설되면서, 불교학, 문학, 언어학, 역사학, 인류학 교수가 초빙되고, 1990년대 초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그 후, 발전적 전개를 통해 현재 해외한국학의 대표적 대학교가 되었다.

UCLA KSP 소속 교수진은 표 4와 같다. 2012년 현재 12명의 전임교수(tenured and tenure-track professors), 1명의 명예교수와 4명의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전임 1부터 강사4까지는 DALC 소속으로서, 이들은 한국학 전공자들이다. 전임8부터 겸임1은 각 전공별 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학 전공자들은 아니다. DALC 소속 전임교수들의 전공은 한국불교학, 한국사, 한국유학, 한국언어학, 한국민속학, 한국기독교, 한국문학이며, 전공 시대는 한국언어학을 제외하면, 모두 전근대와 근현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수 4명, 부교수 1명, 조교수 2명으로 구성된 이들 전임교수들의 박사학위국은 모두 미국이다.

표 4. UCLA Korean Studies Program 교수진<sup>14</sup>

구분	전공	시대	박사학위국	직위
전임 1	한국불교학	전근대	미국	교수

<sup>13</sup> “OVERVIEW OF UCLA’S KOREAN STUDIES PROGRAM.” 이 정보는 2005년 10월 3일 당시 학과장이면서, 한국학연구소장이었던 존 던컨(JOHN B. DUNCAN) 교수가 이메일로 내게 보내 온 것이다.

<sup>14</sup> [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PEOPLE](http://www.international.ucla.edu/korea/people) (2012. 8. 10 검색).

전임 2	한국사	전근대	미국	교수
전임 3	한국언어학	현대	미국	교수
전임 4	한국민속학	근현대	미국	교수
전임 5	한국사	근현대	미국	부교수
전임 6	한국기독교	근현대	미국	조교수
전임 7	한국문학	근현대	미국	조교수
명예 1	한국문학	전근대	독일	명예교수
강사 4	한국어		미국	시간강사
전임 8	지리학	현대	미국	조교수
전임 9	미술사	전근대	독일	교수
전임 10	사회복지	현대	미국	부교수
전임 11	인류학	현대	미국	부교수
겸임 1	한국음악	현대	미국	겸임교수

(2) 학생

1) AKS PIKS

AKS PIKS의 입학 조건은 TOEFL 성적, 학교 성적, 학습계획서, 추천서에 의하며, 공인 토폴 성적이 없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지만, 한국어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입학이 허가된 학생들은 영어 교재를 바탕으로 영어로 수업을 들으며, 발표, 리포트, 기말 논문 등 모든 숙제들도 영어로 하게 되어 있다. 이 학부의 석. 박사 배출 현황 및 학생 현황은 아래 표들과 같다.<sup>15</sup>

표 5. 박사 졸업생 현황

국적	우즈베키스탄	전공	계
학생수	1	한국어문학	1

표 6. 박사과정 수료생 현황

국적	대만	러시아	미국	인도	파키스탄	한국	계
수	1	1	1	1	1	1	6
전공	경제	음악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비고		통합과정		통합과정		통합과정	

표 7. 박사과정생 현황

수	국적	전공	비고
2	필리핀	역사학 1 한국어학 1	통합 과정

표 8. 석사 졸업생 현황

<sup>15</sup> 2006 년도까지의 국별, 전공별 학생 현황 및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6: 참조

국적	한국	불가리아	프랑스	미국	루마니아	베트남	계
수	2	3	1	1	1	1	9
전공	미술사 1, 어문학 1, 역사학 1, 인류학 1, 한국문화학 4						

표 9. 석사과정 수료생 현황

국적	네팔	러시아	몰도바	베트남	인도	중국	탄자니아	계
수	1	2	1	1	1	1	1	8
전공	정치학 2, 사회학 1, 한국문화학 5							

표 10. 석사과정생 현황

국적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몽고	미국	베트남	벨라루스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탈리아	태국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케냐	코스타리카	한국	계
수	1	1	1	1	4	2	1	1	1	1	2	1	1	1	1	2	1	1	24
전공	한국문화학																		

현재까지 박사학위자는 1명이며, 그의 국적과 전공은 각각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어문학이다(표 5).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에 있는 학생은 6개국의 6명이며, 그들의 전공은 경제학, 음악학,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이다(표 6). 박사과정 중의 학생은 1개국의 2명이며, 그들의 전공은 역사학과 한국어학이다(표 7). 석사학위자는 6개국의 9명이며, 그들의 전공은 미술사, 어문학, 역사학, 인류학, 한국문화학이다(표 8). 석사과정 수료생은 7개국의 8명이며, 그들의 전공은 정치학, 사회학, 한국문화학이다(표 9). 그리고 석사과정생은 18개국 24명이며, 그들의 전공은 한국문화학이다(표 10).

### 2) UCLA KSP 대학원생 수

2005년 현재 UCLA KSP 대학원생 수 현황은 표 11과 같다.<sup>16</sup>

표 11. UCLA KSP 대학원생 현황 (2005)

전공	언어	역사	문학	미술사	종교	정치	사회	인류	영화	기타	계
학생 수	6	17	10	2	3	3	2	2	2	2	55

UCLA KSP의 2005년 현재 대학원생 수는 55명이며, 역사 및 문학 전공자가 특히 많다.

### 3) 박사 졸업생 진로

<sup>16</sup> “GRADUATE COURSES ON KOREA” IN “OVERVIEW OF UCLA’S KOREAN STUDIES PROGRAM” (2005). 2012년 현재 대학원생 현황은 입수하지 못했으나, 과거와는 달리, 석사과정은 없어지고, 현재는 박사과정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는 훨씬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AKS PIKS의 박사 졸업생 1명은 현재 번역가로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UCLA KPS (1995-2005)의 박사 졸업생은 Columbia, UC San Diego, Claremont-McKenna, Rutgers, Arizona State, Yonsei University, 한국학중앙연구원, 고구려연구재단, Duke, NYU, Washington University at St. Louis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 II. 교육

### 1. 목표

#### (1) AKS PIKS

AKS 한국학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도제 양성”에 있으며, PIKS도 한국학대학원의 한 부분이란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AKS PIKS의 신설은 “다른 국제대학원에서도 한국학을 하고 있으나, 대체로 현대한국과 사회과학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식의 산물이었다. 이 학부는 한국학대학원내의 제 7 계열로서 그 설치목적은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한국학의 國際化에 기여할 内外國人 인재 양성”에 있었으며, 그 특성화 방안은 “국내 다른 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기존 6개 계열과 차별화된 국제화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학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한국학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게 함”에 있었다.<sup>17</sup> 그러나 현재의 『2012-2013 한국학대학원 요람』, 「국제한국학부」(pp. 233-47)에는 이러한 구체적 목표 자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 (2) UCLA KSP

UCLA DALC의 교육목표는 AKS의 대학원과정처럼 “도제양성” 등으로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도반 양성”에 있다. 또한 이 학부에는 남아시아학, 동남아시아학, 일본학, 중국학 및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학부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언어문화학부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명을 공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범위는 언어로부터, 문학, 종교, 사상, 고고학 및 다른 문화 분야에까지 이른다. 이 학부의 초점은 각 지역의 고유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르는 동시에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상호 교섭을 이해하는데 있다.<sup>18</sup>

즉, 아시아 각 지역의 고유 문화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명 공부에 이 학부의 목적이다.

<sup>17</sup>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 운영계획(案)(2003년 10월로 추정).

<sup>18</sup>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 Cultures (ALC) is dedicated to the study of the civilizations of the Asian region, in all their diversity. The rich cultural heritages of the region are covered in courses ranging from language, to literature, religion, thought, archaeology,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The department seeks to develop a profound appreciation of the unique insights and achievements of each indigenous culture, while understanding at the same time the multivalent interconnections that tie together the Asian region as a whole” (<http://alc.ucla.edu/about>, 2012. 8. 8 검색).

## 2. 교육과정<sup>19</sup>

### (1) 도구 언어

도구 언어는 과정별 및 전공 시대별로 다른데, 그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도구 언어 비교

구분/시대	AKS PIKS	UCLA KSP <sup>20</sup>
석사/ <sup>21</sup> 현대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한문
석사/전근대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한문, 일본어 또는 중국어
박사/현대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한문
박사/전근대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한문, 일본어 또는 중국어, 불어 또는 독어, 산스크리트 <sup>22</sup>

국내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의 도구 언어는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한 편으로, 영어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일례로, 이 분야의 선두 주자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경우는 영어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은 영어와 한국어를 입학 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영어 능력 검증을 위해 학생들은 입학 시 TOEFL 등의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하거나, 각 대학원 규정에 따른 시험에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AKS PIKS의 경우, 국내외인 학생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 국내인 지원자는 반드시 공인영어 성적 또는 규정에 따른 영어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국인 지원자는 2006학년도 2학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의무 규정 없이 입학이 허락되었다. 2012년 현재는 공히 IBT TOFEL 105점 내외를 입학 시 요구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석사과정생은 과정 중, 한국어나 한문 중, 3과목을 택하게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한문을 선택한 학생은 없었으며, 한국어를 택학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4급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박사과정생의 경우도 6급 수준의 한국어 이수를 제외하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UCLA KPS의 경우, 전근대 한국학 분야의 석사과정 지원자는 최소한 한국어, 영어, 한문, 일본어 또는 현대중국어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석사학위 논문 작성 시, 이들 언어로 기록된 일차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sup>19</sup> 2006 년도까지의 도구 언어, 교육내용, 강좌개설현황, 학습량, 행정 현황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6: 참조.

<sup>20</sup> [HTTP://ALC.UCLA.EDU](http://ALC.UCLA.EDU) 의 "GRADUATE PROGRAM" 참조.

<sup>21</sup> 내가 공부하던 1980 년대 후반부터 1990 년대 중반까지는 석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 22 의 정보에 의하면, 2012 년 현재 DALC 에는 박사과정만 있으며, 석사과정은 EAST ASIAN STUDIES INTERDEPARTMENTAL PROGRAM 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sup>22</sup> 불교학 전공자에 한함.

<sup>23</sup> 국내 국제대학원에서는 TOEFL 600 점(PBT) 또는 100 점(IBT)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KS PIKS 에서는 2004 년부터 2008 년까지는 650 점, 637 점, 627 점, 600 점 또는 그 각각에 준하는 성적으로 달랐으며, 2009 년 정도(정확한 정보는 부재)부터는 615 점(IBT 105)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학부교수진 사이의 구체적인 토론의 결과가 아니라, 행정부서 차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규정되어 있다. 영어와 관련해서도 TOEFL 성적만을 요구하는 국내와는 달리, TOEFL 성적 외, GRE 성적도 필수 사항이다.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전공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기한 외국어 외, 독어, 불어 가운데 한 과목을 더 이수해야 하며,<sup>24</sup> 특히 불교학 전공 학생의 경우, 산스크리트가 추가된다(김종명 2006). 학생들이 이들 외국어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2년 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배운다)이며, 다른 한 가지는 교수의 감독 아래 시험을 치르는 것(placement test)인데, 이는 목적 언어에 대한 기존 지식을 가진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2) 교육내용

AKS PIKS와 UCLA KSP의 교육 내용에 대한 비교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교육 내용 비교

구분	교육 내용
AKS PIKS	주로 사회과학 과목, 전통 인문한국학 과목 소수
UCLA KSP	주로 전통 인문한국학 과목, 사회과학 과목 없음

국내 국제대학원에서 개설된 한국학 교육과정은 대부분 근·현대의 사회과학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전통한국학 관련 과목은 드물었다. 즉, 내용면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사회과학 및 시의성 있는 분야에 치우쳐 있는 반면, 역사, 철학, 종교, 문학, 문화, 민속 등 인문한국학 관련 과목은 별로 없었는데(김종명 1997: 160-2),<sup>25</sup> 이 전통은 AKS PIKS의 경우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UCLA KSP의 교육과정은 정 반대다. 즉, 주로 전통 인문한국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과학 관련 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3) 학습량

한국학 대학원의 학습량은 학교 별, 교수 별, 개설 과목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는 있다. AKS PIKS와 UCLA KSP 사이의 학습량에 대한 일반적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학습량 비교

구분	학습량 (쪽/과목/주)	비고
AKS PIKS	60-70	발표, 보고서, 학기말 논문 등 부과
UCLA KSP	300+	발표, 주별 에세이, 학기말 논문 등 부과

<sup>24</sup> 이 학부의 로버트 버스웰 (ROBERT E. BUSWELL, JR.)교수에 의하면, 최근에는 유럽어는 현대중국어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sup>25</sup> 이 점에 있어서는 해외의 한국학 과정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다. 최근 젊은 외국인이나 교포 2 세 연구진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사회과학 분야의 현대시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 해외의 한국학연구에서 전근대시기 연구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신정민 2006: 6).

AKS PIKS의 주당 과목 별 독서량은 평균 60-70쪽 (논문 3편) 정도며,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발표, 1회 정도의 보고서(5쪽 미만), 시험, 학기말 논문(약 10-15쪽) 가운데, 3종류 정도로 이루어지는 편이다.

UCLA KSP의 경우, 한문 문헌 또는 고도의 철학적 문헌들을 제외하면, 주당 과목 별로 책 한 권(보통 300쪽 이상)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가 방법은 발표, 주별 에세이(7-8쪽), 학기말 논문(25-30쪽)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sup>26</sup>

## II. 분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KS PIKS와 UCLA KSP 사이에는 인적 자원과 교육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특히 AKS PIKS의 경우, 인적 자원, 교육목표, 교육과정 등 다방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는데(김종명 2006), 이러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특히 AKS PIKS의 인적자원과 교육과정은 이 학부의 원래 교육목표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1. 인적 구성

#### (1) 교수

“인사가 만사”란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적 자원이며, 그 중에서도 교수진은 대학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한국학 교수진의 기본 자격 요건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학문과 한국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회학을 하면서, 한국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경우, 이는 한국학이 아니고, 한국의 사회를 주제로 하는 일반사회학이다.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등의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해외한국학 교수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었는데(김종명 1997: 182-3), 이에 따르면, 지도교수가 한국학 관련 전공자일 것, 최소한 박사과정에서 도구 언어과목을 포함한 한국학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 그 이후의 연구업적의 75% 이상이 한국학 관련 일 것 등이 전문 한국학자의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AKS PIKS의 교수진 가운데 1명만 이 기준에 준하는 반면, UCLA KSP의 교수진의 거의 대부분은 이 기준에 준하고 있다.

AKS PIKS의 교수진은 전임교수와 겸임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부 교수진의 해외한국학자로서의 전문성은 상당히 약한 편이다. 사실, AKS를 포함한 국내 학계에는 해외한국학자의 자격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전개된 적도 없다.

---

<sup>26</sup> 해외한국학이 개설되어 있는 미국의 다른 대표적 대학교들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수강생 수는 7명이었으며, 그들의 전공은 불교철학(3명)과 유교철학(4명)이었으며, 학위 과정은 석사과정(4명), 박사과정(3명)이었다. 그런데, 2주차 강의 초에 석사과정생 1명과 박사과정생 1명이 거의 동시에 과도한 학습량(당시 미국 대학교 학습량의 약 80%에 해당) 때문에 코피를 흘렸으며, 자신의 셔츠들을 보여 주었다. 논의 끝에 고참 선배 학생이 다음 주에 학습량과 관련된 학생들의 결정을 내게 알려 주기로 하고, 수업은 진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나의 강의 계획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코피 흘린 2명 중 1명과 고참 선배 학생은 그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현재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의 대학교들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2000년 경, 서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학부 과정 한국철학 분야의 영어 강의계획서들을 작성한 적도 있었는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UCLA, HARVARD UNIVERSITY 등 국내의 대학교들의 강의계획서들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학습량은 미국 대학교 학습량의 1/2-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VARD UNIVERSITY의 한국학 관련 학부과정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6 참조.

그러나 해외한국학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수의 경우, 동아시아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지식도 결한 것이 보통이다. 이는 곧 해외한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의 결여를 뜻한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국제학계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로마자표기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 크게 매쿤라이샤워법(McCune-Reischauer System)과 한국정부안, 중국어의 경우, 웨이드 자일법(Wade-Gile System)과 핀인법(Pinyin System), 일본의 경우 햅번법(Hapburn System)이 그것들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개별학문 전공자들은 주로 사회과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은 우선 한국학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적을 뿐 아니라, 해외한국학 관련 주요 학자들, 사전류, 학술단행본(monograph) 및 학술지 등에 대한 정보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학원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식 결여는 중대한 문제다. 더욱이 영어 강의를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해외한국학 분야의 자격자임은 물론 아니다.

AKS PIKS의 전임교수진의 경우, 이 학부가 실질적으로 개설된 2004년 이후 2009년도까지의 5년 간이란 짧은 기간에 2/3 이상의 전임교수가 교체되었으며, 그 후 그 수에 해당하는 신입 교수들이 새로 임용되었다. 이에 따라 전임교수들의 전공도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한국고전문학, 지리학, 한국불교학, 2009년 이후는 심리학, 한국불교학, 한국사로 변화되었고, 그들이 개설한 교과목도 그에 따른 변화가 초래되었다. 타 학부의 전임교수들로 구성된 이 학부의 겸임교수들의 전공은 사회학, 한국유학, 인류학 등이었으며, 그들은 PIKS에 소속되어 있긴 했으나, PIKS의 강의를 일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개설해 왔다.

미국학계에서는 한국학자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A Guide to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1993)는 이와 관련된 좋은 참고 자료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학자들을 연구, 교육, 봉사의 측면을 고려하여, 1%에서 100%까지로 분류한 것인데, 한국학 관련 대학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북미주의 대학교들도 전기와 같은 기준에 준하여 교수들을 초빙하고 있다. UCLA KSP도 이 기준에 준하여 교수들을 초빙하고 있는데, 그 좋은 예는 전기한 “UCLA Korean Studies Program's Brief History” (2005)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학부의 교수들은 한국학 전공 정도에 따라 %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국사의 John B. Duncan교수와 Namhee Lee교수는 100% 한국학자, 불교학의 Robert Buswell교수는 40% 한국학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표 14).

표 14. UCLA KSP 전임교수직  
(Regular Ladder-Track Faculty) 현황 (2005)<sup>27</sup>

전공	세부 전공	교수 수	한국학 비율(%)
역사학	전근대	1	100
역사학	근대	1	100
언어학	한국어	1	100
문학	전근대	1	100
미술사	전근대	1	100
불교학	전근대	1	40
민속학	근현대	1	40

<sup>27</sup> “Overview of UCLA’s Korean Studies Program” (2005).

인류학	해외 한인	1	20
공공정책	사회복지	1	0
사회학 <sup>28</sup>		1	40

## (2) 학생

AKS PIKS 대학원생들의 전공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전통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현대 한국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전공은 사회과학 관련 전공이 대다수며, 한국문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인문학 전공자는 극히 소수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의 타 국제대학원의 한국학 전공 프로그램의 경우와 비슷한 현상이다.

반면, UCLA KSP 대학원생들의 상당수는 인문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전공자는 없다. 한편, KSP의 경우도 전근대 인문한국학 전공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는 언어 장벽과 학위 후 취직의 어려움 등 현실적 요인들 때문이다.

## 2. 교육

### (1) 목표

대부분의 국내 국제대학원의 한국학전공은 석사과정 중심의 ‘국제실무전문가’ 양성을 그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김종명 1997: 152),<sup>29</sup> 실질적인 한국학 전문 연구자 양성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AKS PIKS의 경우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부의 초기 목표와 특성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한 목표와 특성화 방안에는 부응하지 못해 왔으며(김종명 2006: ),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반면, UCLA KSP는 아시아적 맥락에서 전통 인문한국학의 바탕 위에서 근현대 시기 한국학이 연구 및 교수되고 있어, 이 학부의 한국학의 목표는 이 학부의 목표와 잘 부응하고 있다.

### (2) 교육과정

AKS PIKS가 가지고 있던 도구언어, 교육과정, 학습량의 문제점(김종명 2006:)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반면, UCLA KSP의 그것들은 국제경쟁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1) 도구언어

국내 대부분의 국제대학원의 한국학 프로그램에서처럼, AKS PIKS에서의 유일한 도구 언어는 영어에 불과하여, 학문적 객관성 부여가 어렵게 되어 있는 반면, UCLA KSP의 도구 언어는 한국어, 영어, 한문, 일본어 또는 중국어, 불어 또는 독어, 산스크리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업적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구성 되어 있다.

#### 2) 교육내용

AKS PIKS의 교육과정은 시대로는 현대, 학문분야로는 사회과학 관련 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전근대 전통 인문한국학 분야의 강좌는 적다. 이는

<sup>28</sup> 2006년 7월 1일까지 초빙 예정.

<sup>29</sup>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의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한중연 해외한국학프로그램 등에는 한국학전공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UCLA KSP와는 아주 다른 현상이다. 또한 AKS PIKS 소속의 현 재학생들의 전공은 “한국문화학”으로 되어 있으나, 이 개념은 정체성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 3) 학습량

AKS PIKS를 비롯한 국내의 국제대학원들의 학습량은 UCLA KSP의 그것에 비해 1/4 정도에 불과한 편이며,<sup>30</sup> 이는 미국의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의 학습량에 해당한다. 일례로, Santa Monica College의<sup>31</sup> 주별 과목당 독서량은 60-70쪽에 달한다. 그러나 4년제 대학교인 UCLA ALC의 한국학부의 그것은 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120쪽 내외로서,<sup>32</sup> AKS PIKS 학습량의 두 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접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국내외의 현실을 감안하여 AKS PIKS에서 내가 개설한 과목의 학습량을 UCLA ALC 학부 수준 정도로 높이자, 개설 과목이 폐강되는 사례를 나는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sup>33</sup>

영어 강좌 개설 과목 수도 문제다. 2004학년도 1학기부터 2006학년도 2학기까지 AKS PIKS에 개설된 학기당 평균 개설 강좌 수는 2.5과목에 불과했는데(김종명 2006), 2012년 현재도 강좌 수 자체는 약간 증가한 편이나, 사정은 그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편이다. 행정적으로는 AKS PIKS의 대학원생들은 이 학부의 영어 강의 외에 다른 학부 및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sup>34</sup> 한국어로 개설된 강의들도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PIKS 학생들의 일부는 이들 한국어 강의를 수강한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은 입학 시에 한국어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로 개설된 대학원 수준의 한국학 관련 강의에 대한 소화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수 년 전 내가 이러한 학생들 6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시도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합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학생들이 취득한 학위의 질적 수준 또한 당연히 문제시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즈빙과』(孫子兵法)의 다음 인용문은 국내의 해외한국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나, 남을 모르고 자기만 알면,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긴다. 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진다.”<sup>35</sup>

## III. AKS PIKS의 교육 방향

미국학계의 한국학 연구는 1960 년대에 시작되어, 1970 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 된 이래 약 50 여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국내 대학교의 상당수

---

<sup>30</sup> 나는 1995년 이래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국내의 국제대학원(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들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학습량과 관련 대학교 별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편이었다.

<sup>31</sup>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소재한 2년제 전문대학으로 UCLA 를 비롯한 UNIVERSITY OF CALIFORNIA 로의 전학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다. 이는 이 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이 다른 전문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음을 의미한다.

<sup>32</sup> 나는 2008-9 년에 UCLA 의 ALC 에서 "BUDDHISM IN KOREA"와 "BUDDHIST CULTURE OF KOREA"을 학부과정에서 개설하였는데, 이 학부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부과된 이 과목들의 주별 독서량은 평균 125 쪽이었다.

<sup>33</sup> 이 점은 국내의 다른 국제대학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교들의 행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강좌가 인기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곤 하였다.

<sup>34</sup>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가 이에 해당한다.

<sup>35</sup> 知彼知己 百戰不殆 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 (박일봉 1986: 60).

전공들이 1960년대 이래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미국 한국학의 역사도 짧다고 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외 한국학자들 사이에는 상호간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미국학자들은 국내의 연구 성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연구에서 국내의 연구업적들을 참고할 뿐 아니라, 한국을 종종 방문하기도 하면서, 국내 학계의 주요 이론과 시각 등에 어느 정도 친숙한 상황에 있다. 이에 비해 적지 않은 전통 인문한국학 분야의 국내학자들은 상대적으로 해외학자들과의 교류가 드물고, 그들의 연구동향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학문의 두 축 중의 하나인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한국학계의 연구 성과들은 현재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출판되기 때문에 세계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행해지는 한국학 연구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근거 없는 선입견적 폄하가<sup>36</sup>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며,<sup>37</sup> 국내 한국학자들의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읽기 능력의 부족도 또 다른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충열의 지적(김충열 1994: 6-7)은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나는 국내 한국학계의 상황을 “한국학의 위기”상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AKS PIKS의 인적 자원과 교육과정은 학문적 객관성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 1. 인적 자원

AKS PIKS를 비롯한 국내 국제학대학원들에서는 해외한국학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학계에서는 전기한 바와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근거로 할 경우, AKS PIKS의 현안 중, 가장 큰 문제는 교수진의 한국학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이며, 이 문제는 국내 한국학대학원 한국학 전공이 가진 공통 문제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자들의 높은 연구 수준(김종명: 2009:94)이다. 따라서 향후 AKS PIKS는 이 학부의 초기 교육목표인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학의 국제화”에 준하여,<sup>38</sup> 한국학 전문성이 높은 전근대 인문한국학 분야의 전임교수 보충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교육과정

### (1) 교육목표

미국의 한국학계는 전통적으로 박사학위자 중심의 전문 한국학자 양성을 목표로 해 왔으며(김종명 2006), 이 목표는 현재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내 국제대학원의 한국학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는 실무전문가 양성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학 전문 연구자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종명 2006)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 해외 한국학계의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전통한국학과 관련된 수월성 있는 연구업적이 많지 않다는 것과, 학문후속세대들 가운데

<sup>36</sup>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십 수 년 전 김충열(1994:5-8)이 지적한 바가 있다.

<sup>37</sup> 나의 직접 경험에 의하면, 세계적 명성을 지닌 대학교로서 한국학 분야의 대표 격인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한 교수(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큰 상들을 받은 바 있다)는 자신의 연구업적에 대해 주류 국내학계는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업적들을 읽지도 않은 채 폄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그의 저서를 읽은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sup>38</sup> 한국전통문화 관련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6 참조.

전통한국학 전공 희망자가 드물다는 사실이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미국 UCLA의 Peter H. Lee 명예교수(Lee 2011: 3-4)와 영국 University of London의 Youngsook Park 명예교수(Pak 2011: 13-20)의 지적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AKS PIKS의 교육 내용이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학의 국제화를 지향한 점(김종명 2006)은 여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식의 실현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국가의 AKS 지원목표도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김종명 2009:104)에서 벗어나, “한국학의 객관성, 보편성 확보”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버스웰교수의 주장처럼,<sup>39</sup> 한국학자들이 스스로 수월성 있는 연구업적을 쌓는 것이 한국학의 세계화의 첩경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 제고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도구 언어

“해외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전공 시대와 분야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영어“현행 국내 국제대학원의 해외한국학의 교육과정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구 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김종명 2006:), 적은 “해외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전공 시대와 분야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영어는 물론, 한국어를 비롯한 동아시아어 문헌에 대한 해독 능력 확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김종명 2006: )는 주장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현안으로 남아 있는 문제기도 하다. 따라서 영문자료에만 의존한 채 교수되고 있는 AKS PIKS의 현행 교육 방식은 학문적 객관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학 전문학자 양성을 위해 UCLA KSP에 준한 도구 언어 정책이 필요하다.

## (3) 교육내용

기존의 지원이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 중심에서 탈피하고 타 학문 분야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김종명 2006:96)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있다. 국내외 한국학계의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인사는 만사”란 점에서 이는 우선 주요 인적 맥락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례로, AKS의 원장도 1986년 이래 현 원장 이전까지 25년 간 한 명(2008-11)을 제외하면, 모두 사회과학 전공자들이었으며, 2012년 현재 AKS의 한국학 관련 보직 11곳 가운데, 대학원장직을 포함한 8곳의 행정책임자들도 사회과학 전공자들이다. 따라서 AKS PIKS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통 인문한국학 관련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 및 수행되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인문학의 언어학, 역사, 철학, 문학 등, 사회과학의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등으로 학문을 분류하는 일반적 기준은 연구자의 의지, 연구 자료 및 연구방법이다. 미국의 한국학계도 이 기준에 따라, 아직까지는 한국언어학, 한국사, 한국철학, 한국문학 등의 인문학 분야를 한국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분야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의 영어 강의가 가능한 한국인이 곧

<sup>39</sup> 그는 UCLA 최초의 한국학 교수로서 Center for Korean Studies 의 창립 소장, 세계 최대의 동양학회인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의 회장,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고, 만해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UCLA Distinguished Professor (이 개념은 국내에서 특훈교수로 번역 사용되고 있다)와 Center for Buddhist Studies 창립 소장으로서 재직 중이다. 또한 그는 UCLA 가 불교학, 한국학 및 아시아학 분야에서 세계적 대학이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력과 학문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8 참조.

해외한국학 전공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해외한국학 전공자는 전기한 바와 같이 적어도 영어권 대학교에서 한국학 분야의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쓴 후,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업적을 산출한 이나 이에 준하는 이로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AKS PIKS의 설립목표는 전통 한국문화 연구에 있었다. 따라서 “전통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가 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김종명 2006:39)란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며, 이는 여전히 AKS PIKS가 앞으로도 견지해야 할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AKS PIKS의 교수진은 전통 한국학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춘 학자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은 이 학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 (4) 학습량

“질적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습량이 부과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국내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의 학습량은 북미주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학 전문학자 배출을 위해서는 이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김종명 2006)는 지적은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AKS PIKS의 학습량은 적어도 UCLA KSP의 학습량에 준하거나, 더욱 수월성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때 AKS PIKS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맺음말

교수진의 한국학 관련 전문성과 교육목표가 분명한 UCLA KSP와는 달리, AKS PIKS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AKS PIKS의 교수진과 교육과정은 UCLA KSP의 그것들에 비해 전문성과 수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의 정체성도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 향후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학 전공교수의 임용(이 점은 AKS PIKS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과 함께, 학부 설립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전통 인문한국학 관련 전문 한국학자 배출에 두고, 학생들에게는 영어뿐 아니라, 다른 필요 도구 언어로 된 문헌들에 대한 해독 능력 배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2012-2013 한국학대학원 요람』.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김종명. 「국내의 “해외한국학” 교육: 현황. 과제. 방향」, 『아태연구』 13-1(2006. 5): 105-28.
- 김종명. 「국제대학원과 한국학의 세계화: 한국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국제한국학회지』 제2권(1997): 151-91.
- 김종명. 「만해대상(포교부문) 수상자 로버트 버스웰론: 미주 한국불교학의 정립자」, 『유심』 33(2008. 6).
- 김종명. 「한국사 연구 형태 비교: 한. 미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콜로키엄, 2011. 12. 1.
- 김종명. 「해외한국학계열 교육과정: 현황·현안점·방안」,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 한국학대학원의 혁신방안 연구 -한국학 영역별 중장기 연구사업 과제 개발 연구(대학원 사업 영역) 결과 보고』,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 31, pp. 33-72.
- 김충열, 「서문」,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서울: 예문서원, 1994), pp. 5-8.
- 朴一峰 譯著. □孫子兵法□. 서울: 育文社, 1986.
- 신정민. 「쟁점 해외한국학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교수신문》, 2006. 6. 19 (6).
-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백서』.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해외한국학계열 운영계획(案)」, 2003년 10월로 추정).
- Best, Jonathan W. 2006. *A History of Early Korean Kingdom of Paekche*.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Breuker, Remco E. 2010. *Establishing a Pluralist Society in Medieval Korea, 918-1170*. Amsterdam: Brill.
- Craig S. Coleman, ed., *A Guide to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한국학 연구 안내서. Los Angeles, California: The Korea Society, 1993.
- <http://alc.ucla.edu>
- Korean Studies Abroad: Profiles and National* .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0.
- Lee, Peter H. “What is a Classic?,” 『고전학연구』 창간호(제 1 권) (2011. 12): 3-4.
- “Overview of UCLA’s Korean Studies Program” (2005).
- Pak, Youngsook. 「한국 고전학 활성화 방안」, 『고전학연구』 창간호(제 1 권) (2011. 12): 13-20.
- Vermeersch, Sem. 2008. *The Power of Buddhas: The Politics of Buddhism during the Koryo Dynasty (918-1392)*. Cambridge (Massachusetts):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